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3. 11. 27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발전경과 및 성과



한국금융의 현재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금융업 발전전략 : 세부 추진과제



향후 추진계획

I

발전경과 및 성과





한국금융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 · 공급하는
자금중개기능에 중점을 두고 성장

개발금융기 (60-70년대)

정부주도 금융자원
통제·배분

- 자본총동원 체제
- 국책금융·은행 중심

금융자유화 추진기 (80-90년대)

안정·자율·개방으로
선회 노력

- 금융자유화 기반 조성
- 제2금융권 육성

성장·발전기 (98년 이후)

위기극복 이후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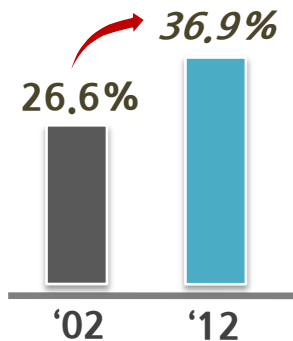
- 위기대응능력 제고
- 시장경쟁 확대

I 발전경과 및 성과 : 한국금융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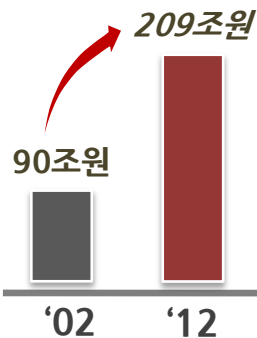


지난 60여년간 한국금융은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적극 뒷받침

[중소기업대출/GDP]



[회사채 발행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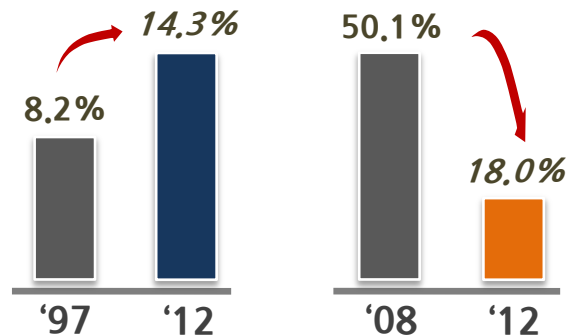


경제개발자금
안정적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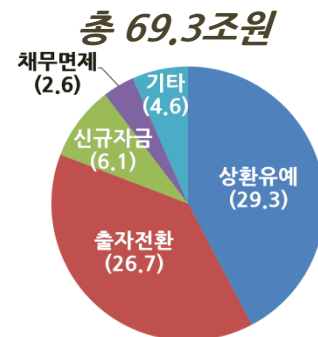
금융안정성
제고

신속한 기업부실
정리 지원

[국내은행 BS비율] [은행단기외화차입금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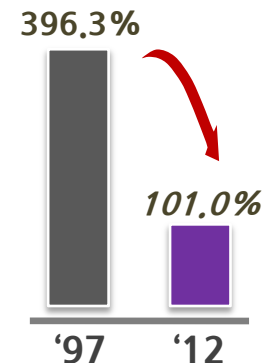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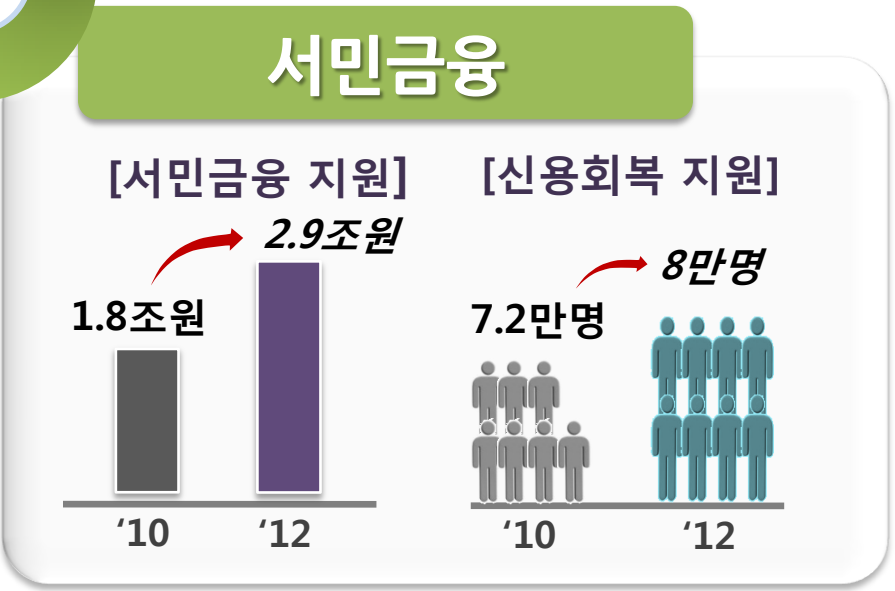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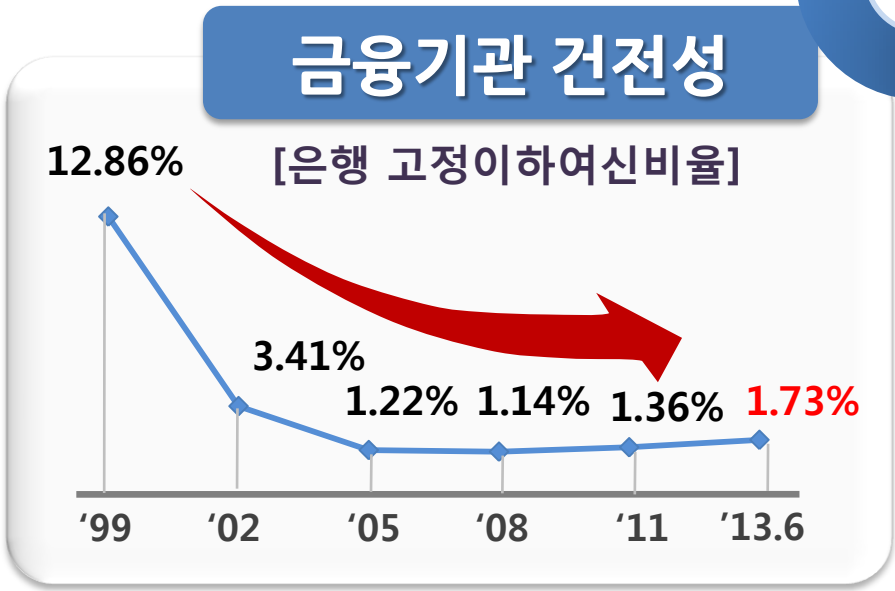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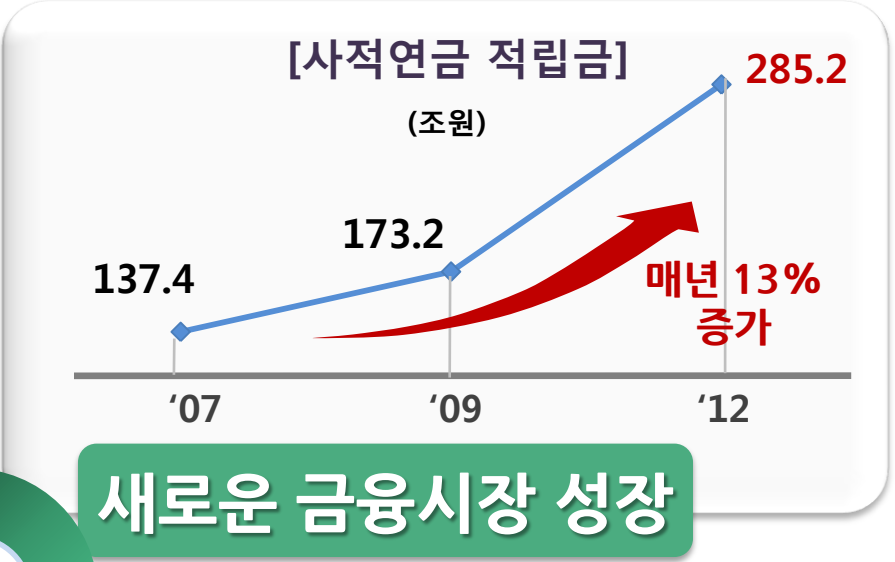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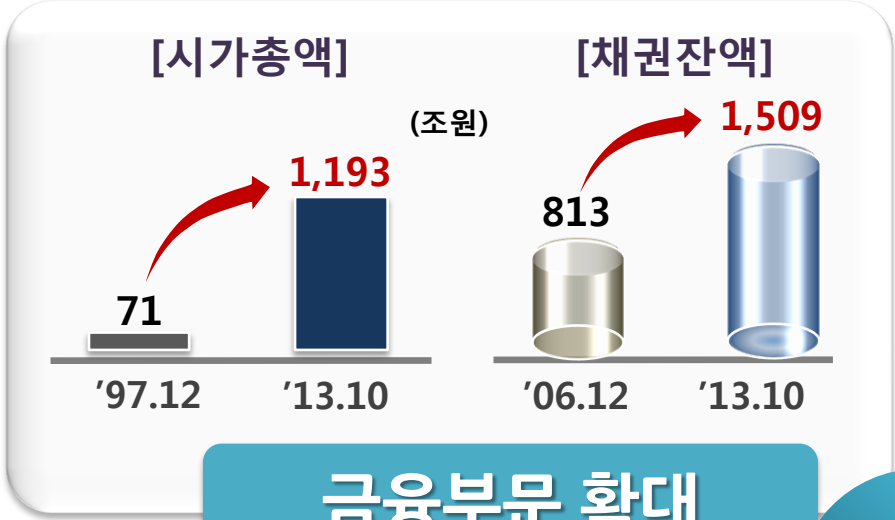
[금융권 손실분담]



'98~'08 기간중
워크아웃종료 64개사 기준

[제조업 부채비율]





II

한국금융의 현재



Ⅱ 한국금융의 현재 : 금융환경의 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여건과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금융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

〈 패러다임의 전환 〉

경제성장 여건

빠른 실물경제 성장



**성숙경제,
고령화 진입**

경제발전 동인

요소투입 양적성장



**창의·아이디어
(창조경제)**

금융시장 구조

금융공급자·시장 중심



**금융소비자
중심**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각국 정부는 국제적 공조하에 다양한 정책대응을 추진 중



다양한 위기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금융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

1

장기 경기침체·둔화

-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며 세계경제의 초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가능성 제기 (Larry Summers, IMF conference, 13.11.8일)

세계경제성장률(IMF, 13.7월)

Year	Growth Rate (%)
2007	5.5
2009	-1.5
2011	5.5
2013p	3.0

2

부채구조 악화

- 선진국의 GDP대비 총부채(민간+공공)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향후 정책 대응여력이 악화 (FSB SCAV Report, 13.11.6일)

As a percentage of GDP

Year	Stressed EA economies ¹	Other advanced economies ²	Japan
91	120	160	280
93	125	170	290
95	130	180	300
97	135	190	310
99	140	200	320
01	145	210	330
03	150	220	340
05	160	230	350
07	170	240	360
09	200	260	370
11	250	270	380
13	320	280	390

3

출구전략

- 출구전략이 예견된 상황에서 경상수지 갭이 큰 신흥국의 신용경색 발생 우려 (The Economist, 13.9.7일)

(조불)

Year	연준 자산	국채	MBS
08	0.5	0.5	0.5
09	2.0	0.5	0.5
10	2.5	0.8	1.0
11	2.8	1.5	1.0
12	3.0	1.8	1.0
13	3.5	2.0	1.5

Ⅱ 한국금융의 현재 : 한계와 도전



우리 금융은 여전히 과거 행태에 안주하고 있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역량이 부족하고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도 낙후

보신주의 '비울 때 우산뺏기'

- ▶ 담보·보증에 의존한
쉽고 보수적인 방식에 안주
- ➔ 창조경제 지원에 한계

현상유지 '우물 안 개구리'

- ▶ 혁신적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시장에 안주
- ➔ 금융업 경쟁력 낙후

금융소비자 소외 '그들만의 리그'

- ▶ 금융사우위시장구조가 지속되고
금융감독 혁신노력 부족
- ➔ 금융부실반복과 소비자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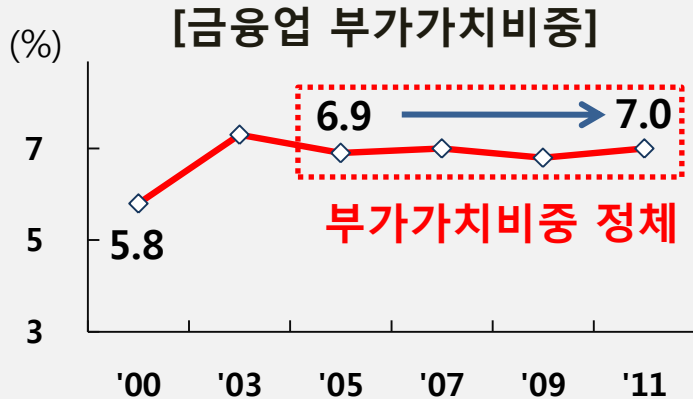
「3가지 한계」에 직면

수익성(profitability)
창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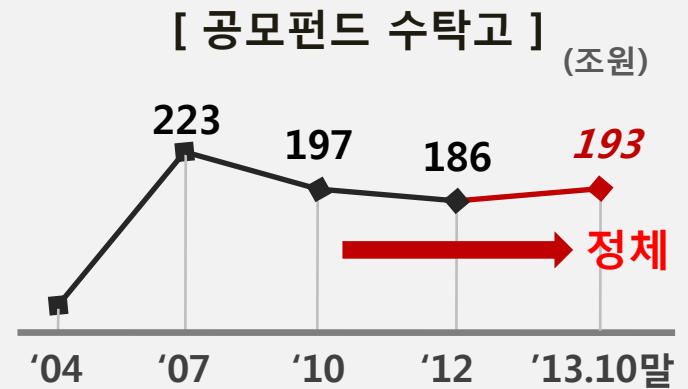
국민신뢰(credibility)
상실

뚜렷한 발전전략
(Vision)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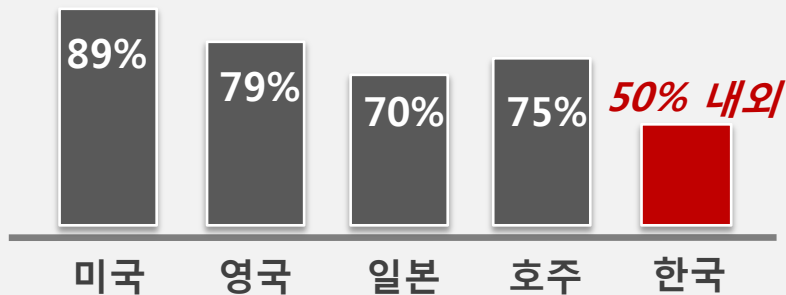
금융업 부가가치 정체



자본시장 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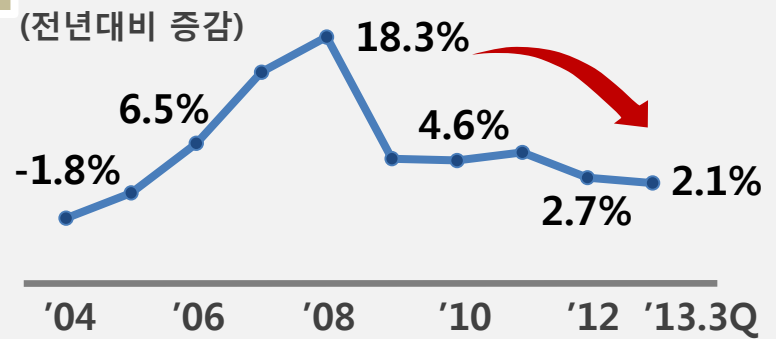


[연금 소득대체율]



아직은 부족한 노후 준비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증가율]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정체

Ⅱ 한국금융의 현재 : 재도약 가능성



한국 금융은 종전 관행에 안주할 경우 현상 유지도 어렵겠지만,
직면한 도전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도약 가능**

1.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실물경제와의 동반발전

- 新 비즈니스 모델 개척

* 한국, 무역규모 세계 8위

2. 고령사회 진입 전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모색

- 연금 등 금융부문 신수요 창출

* 호주 퇴직연금, 매년 12% 성장('92년~)

3. 신흥국과의 동반발전 기회 존재

- 부실채권 정리 경험, 인프라 등 전수

* 한국형 증권거래시스템 등 17건 수출('07~'13년)

4. 풍부한 금융자산을 활용한 금융업 발전 가능

- 국내에 축적된 자산의 효율적 운용

* 싱가포르(GIC, 테마섹) 사례

III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비 전

금융업의 가치 제고 (10-10 value up)

3대 미션(3C)

Competition

경쟁과 혁신
촉진

Convergence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Consumer- Protection

국민 재산의
안정적 보호

Ⅲ 비전과 미션 : 비전(금융업의 가치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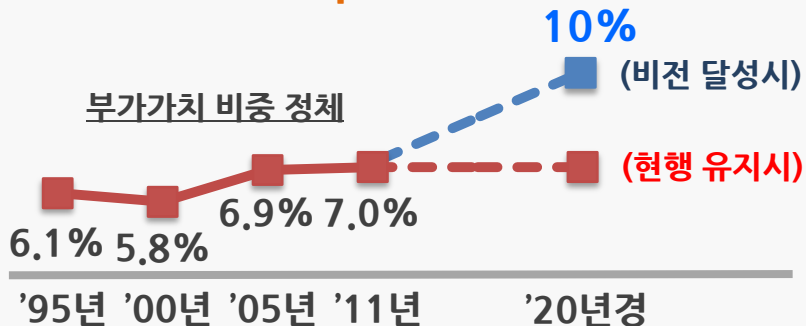


10 - 10 Value up

-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수준으로 확대 (90년대 이후 6%대 정체)
 - * 수치적 달성 목표가 아닌 가치제고(질적 내실화) 지향
- 금융의 가치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

금융업 가치제고

10-10 Value-Up



경쟁력 있는 금융업

창조경제
구현 지원

일자리 및
세수 창출

국가 자산의 증대



다음의 3가지 미션을 핵심목표로 중점 추진하여,
금융업의 가치 제고(금융비전)를 달성

3대
미션
(3C)

경쟁과 혁신
촉진
(Competition)

“금융 스스로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금융업 규모 확대)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Convergence)

“창조금융을 통한
동반가치 창출
 (실물분야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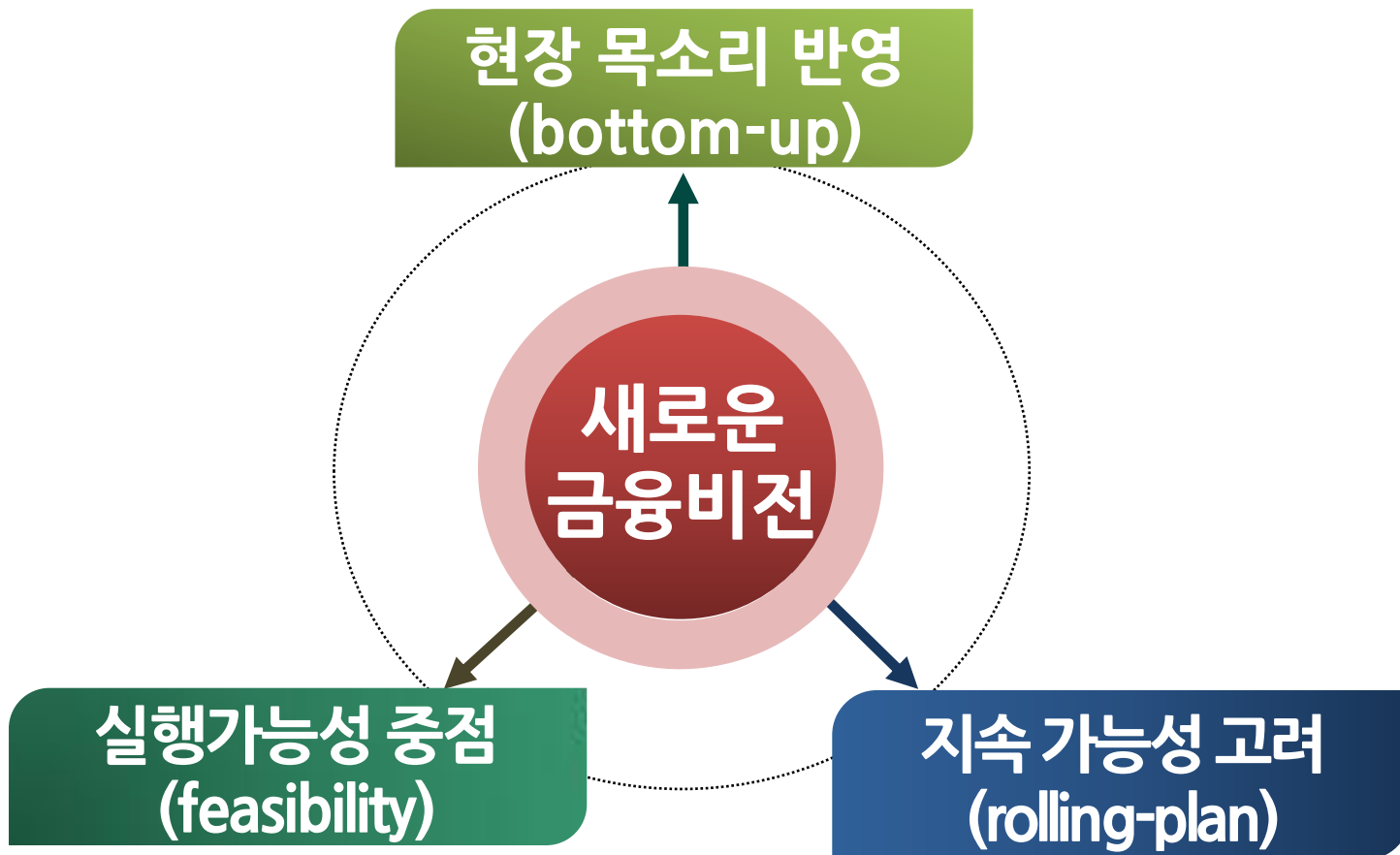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
(Consumer-Protection)

“금융소비자 보호로
축적된 재산(가치) 보호
 (튼튼한 방어벽 구축)

**금융업
가치제고**
 10-10 Value-up



과거 수립된 장밋빛·일회성 비전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음 **3가지 요인에 보다 중점**을 두고 비전을 수립





금융위원회, 6개월간 총 68차례 간담회 개최

5.24일 금융지주회사간담회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로 확대”

7.4일 외국계금융사CEO 간담회 “외국계 금융사 규제 합리화”

8.23일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세미나 “벤처·창업기업 지원 금융시스템 구축”

9.24일 자산운용업계간담회 “자본시장에 연금자산 투자 늘린다”

9.26일 금융사 해외법인장 간담회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원점서 재검토”

11.12일 기술평가기술금융세미나 기술신용평가사 2~3곳 내년 출범

Ⅲ 비전과 미션 : 중점 고려요인



**현장 목소리
(bottom-up)**

금융에 요구되는 국민·기업·금융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3대 미션 달성을 위한
9대 목표 수립**

**실행가능성
(feasibility)**

비전 달성을 위해 우선 실현 필요한
과제부터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

**실현 필요과제
우선 발굴
("주춧돌 놓기")**

**지속 가능성
(rolling-plan)**

금융여건 변화,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추진체계 구축
※ 비전에 부합하는 시장요구는 적극적 수용

**추진 과제
지속 발굴·보완
("동태적 추진")**

IV

금융업 발전전략 : 세부 추진과제





3대 미션(3C)

경쟁과 혁신 촉진
(Competition)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Convergence)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
(Consumer-protection)

9대 목표

- (1) 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 (2) 100세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 (3)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4)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5)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6)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 (7)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 (8)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 (9)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목표 1 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목표 2 100세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목표 3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현장의 목소리

- ▶ 칸막이 규제로 진취적 영업 곤란
- ▶ M&A 등 시장경쟁압력 부족
- ▶ 업권별 특색없이 Red-ocean화, 상품·서비스 쏠림현상 지속

목표 설정

- ▶ 건강한 금융시장경쟁 활성화
- ▶ 업권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업권간 경쟁·보완 관계 정상화

경쟁을 통한 영화산업 발전 사례

외국사직배하용



1988

상영관수
제한폐지



1992

사전심의제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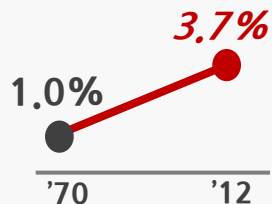
1997

금융자본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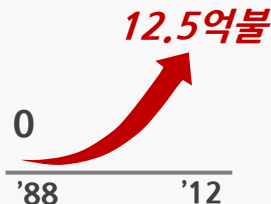


1998

문화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문화서비스 수출



경쟁제한 규제 정비

진입·퇴출 문턱 낮추기

- **신규진입·영업업무 인가 체계의 간소화**
 - * 금투업 인허가 단위 축소(48개 단위 단계적 인가 → 대단위 일괄인가)
 - * 여전업 칸막이식 인가 통합(할부, 리스, 신기술 → 단일화)
 - * 사모펀드 규율체계 단순화(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2개로 통합)
- **경쟁력을 상실한 금융사는 M&A 등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

영업규제 Negative 전환

- **금융업 부수업무의 '원칙허용·예외금지' 전환**
 - * 예) 여전업(카드제외) 부수업무를 Negative로 전환
- **벤처·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 * 미래가치를 반영한 벤처투자 회계처리로 개선
 - * 부동산펀드 투자의 승인 절차 간소화
- **비금융업 부수업무의 단계적 허용 확대**
 - * 예)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 등

경쟁제한 규제 정비

업권별·상품별 규제차익 해소

- **금융조세·부담금 체계를 가격중립적으로 정비**
 - * 예)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한도, 파생상품거래수수료 등
- **건전성규제, 투자자보호규제의 형평성 제고**
 - * 예) 총당금적립기준, 금융상품 설명·고지 의무 등
- **유사금융업무와의 공정경쟁기반 조성**
 - * 유사보험, 비금융업법상 간접투자기구 등

경쟁촉진 인프라 조성

- **소비자의 실질적 금융회사 선택권 보장**
 - * 은행 계좌이동제 도입('14~'15년 준비, '16년 실시)
 - * 금융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조성**
 - * 금융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확대 등
- **무인점포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기반 마련**
 - * 독립판매채널, 무인·이동점포, 인터넷·모바일 판매채널 등

금융권 M&A 촉진

증권회사 M&A 촉진

- M&A 추진시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예)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 허용 등
- 경영부진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으로 M&A 제약요인 제거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 촉진

- 우투증권 매각 등으로 경쟁촉진
- 우리은행 민영화로 유효경쟁체제로 재편
* 4대은행 시장점유율 : 한국(55.0%), 호주(87.4%), 영국(82.2%), 캐나다(75.5%)
- NPL시장 민간 경쟁 제고·기능활성화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 정책금융의 시장마찰 영역을 민간 이양
* '17년까지 단기수출보험 민간 보험사에 단계적 개방

경쟁·보완관계 형성

은행

- 효율적인 자금중개 역할 제고
-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전

- 기업금융의 새로운 역할 강화
- 실물과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보험

- 고령화 시대 대비 역할 강화
-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관리자

서민금융

- 지역기반 관계형 금융
-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금투

-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자
- 창조경제 지원의 핵심 플레이어

금융지주

- 그룹시너지창출을위한전략기능강화
- 그룹 통합 감독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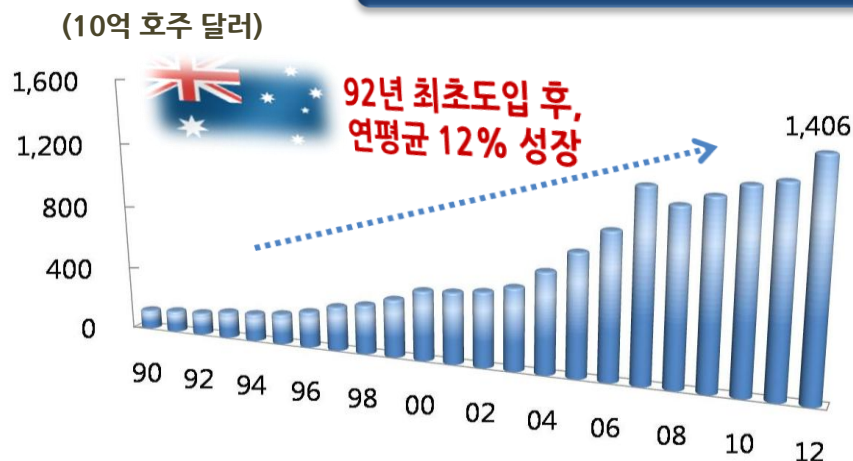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연금은 절세수단·적금처럼 인식
- ▶ 체계적인 자산관리 노하우 부족
- ▶ 다양한 노후 서비스 수요 증대

목표 설정

- ▶ 체계적인 연금시장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원으로 활용
- ▶ 부동산 유동화,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권 수익원 다변화 유도

호주 연금시장을 통한 금융업 Upgrade 사례



뮤추얼펀드 순자산규모 세계 3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36% 차지





노후준비 인프라 조성

종합연금포탈 구축

- 모든 공·사 연금 정보 실시간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14년말)
 - *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등
-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미래설계센터 신설

- 노후 설계·교육의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1:1 매칭 상담서비스 제공
 - * 금융권의 은퇴한 PB인력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상담 인력풀 구성



장수위험 관리 강화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지원
 - * 장기채 시장 활성화 및 장수리스크 헤지상품(예: 장수채권) 발행 검토
- 금융회사의 장기자산(연금 등) 운용규제 합리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개인연금

-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
* 예)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 등
- 가입절차 단순화, 수수료 인하 유도 등 가입확대 유도



퇴직연금

- 퇴직연금(DC, IRP)은 별도 5천만원 보호한도 적용('14년)
-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 축소('14년 30% 내 → '15년 금지)
- 연금자산 자본시장 환류 및 연금수령 비중 확대(고용부 협업)

주택연금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 향후 10년간 40만건 공급 확대
- 가입대상 확대 및 상품 다양화(확정기간 지급형 도입)
- 주금공과 민간 금융사 협업으로 가교형 주택연금 개발



생애주기 자산관리 활성화

- 개방형 원스톱 쇼핑채널 도입
 - * 예) 펀드 슈퍼마켓의 취급품목 확대 검토 등
-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14년 목표)
- 재형저축 제도개선 및 가입유인 제고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업)



국민 노후 건강보장 강화

-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 유도(현물보상 허용)
 - *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 출시 유도
- 노인 대상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개발
 - * 독거노인 안부확인,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 고령층 보험금 청구 제도 도입 검토
 - * 예) 고령환자의 보험금 미청구 최소화를 위해 보호자 등이 대신 청구



목표 3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현장의 목소리

- ▶ 국내 금융시장 성장 둔화
- ▶ 해외 진출을 위한 신뢰, 네트워크 형성의 지렛대 필요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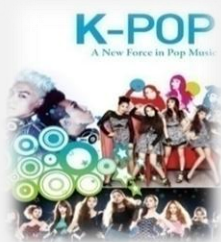
- ▶ 글로벌 기업, 축적된 국부, 금융외교 등을 활용한 금융한류 창출
→ 신흥국의 성장엔진을 동반 향유할 수 있는 매개 산업화

해외진출의 지렛대

글로벌기업
(수출기반)



아시아신흥국
문화 주도



금융 인프라 수출



국가 금융자산



연금자산등 "최소 1,087조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유도

➤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 연장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3년 → (개선) 은행 3년, 보험 5년

➤ 진출지역 편중 완화 및 현지화 유도

* ① 해당지역 최초 진출 시 현지화평가가점 부여 ② 현지화 평가 신설(보험·금투)



투자규제 완화

➤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 지주사 해외 孫子 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 완화

* (현행) 해외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의무화 → (개선) 담보의무 완화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 은행 해외지점·여신업 해외 업무범위 확대

* <은행> (현행) 국내법 허용 업무만 가능 → (개선) 현지법령 허용 업무도 인정

* <여신업> (현행) 해외 금융회사 경영관리(인력파견 등) 곤란 → (개선) 허용





해외금융시장 개척기반 마련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진출

- 신흥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형 금융 인프라 수출
 - * 예) 신용평가 모형, 예금보험제도, 부실채권정리 경험 등
- 신흥국 금융당국대상 금융협력 프로그램 마련
 - * 예) 금융관계자 초청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등

글로벌 국내기업과의 연계진출

- 대기업(협력업체) 해외 진출시 은행 동반진출 도모
 - *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시, 금융사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Package Deal 협의
 - * 예)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동반진출 MOU 체결 등 추진

국가 금융자산의 적극적 활용

- 국부를 실물경제 성장과 금융업 발전에 전략적 연계 (관계부처 협업)
 - * '12년말(조원): 국민연금(392), 퇴직연금(69), 개인연금(216) 등
 - * 예) 연기금 등이 해외투자시 국내자산운용사 활용 확대 등
- 국부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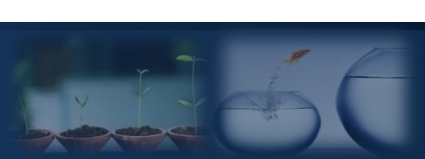
금융 국제화 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 **주요 진출희망국 대상 금융세일즈 외교 적극 추진**
*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시 금융회사 해외진출, 금융 인프라 수출 등 의제화
-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능동적 참여**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설 및 민·관 소통채널 마련**
* 해외진출 추진 민간 금융회사 및 금융공공기관 참여 회의체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 추진

- **서울(여의도), 부산(문현)의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서울) 해외 IR(연 2회), 중심지 진입 금융회사 자금지원 조례 제정
* (부산) 국제금융센터 완공(1단계: '14.6),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및 내실화
- **금융중심지 진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 자금 및 세제지원, 경영 및 생활 정보 제공, CEO 간담회 및 서면의견수렴(반기별 1회 이상)
-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제시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선제적 시장 진출

- 현지합작법인 설립('92), 한국계 은행 최초 지점('95) · 현지법인('09) 설립
- 현지 합작법인과 합병('11)으로 영업망 확충 및 시너지 도모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 현지 기업 및 개인대상 영업 활성화
 - * 현지 고객비율(88.5%, 국내은행 해외점포 평균 70.6%, '13년 상반기)
-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베트남 사회책임경영 대상 수상, '12)

현지 외국계 은행 중 3위권 은행으로 성장 ('12년 말 기준)

* 자기자본 기준 1위, 당기순이익 2위, 대출금 기준 3위



창조금융 활성화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4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목표 5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목표 6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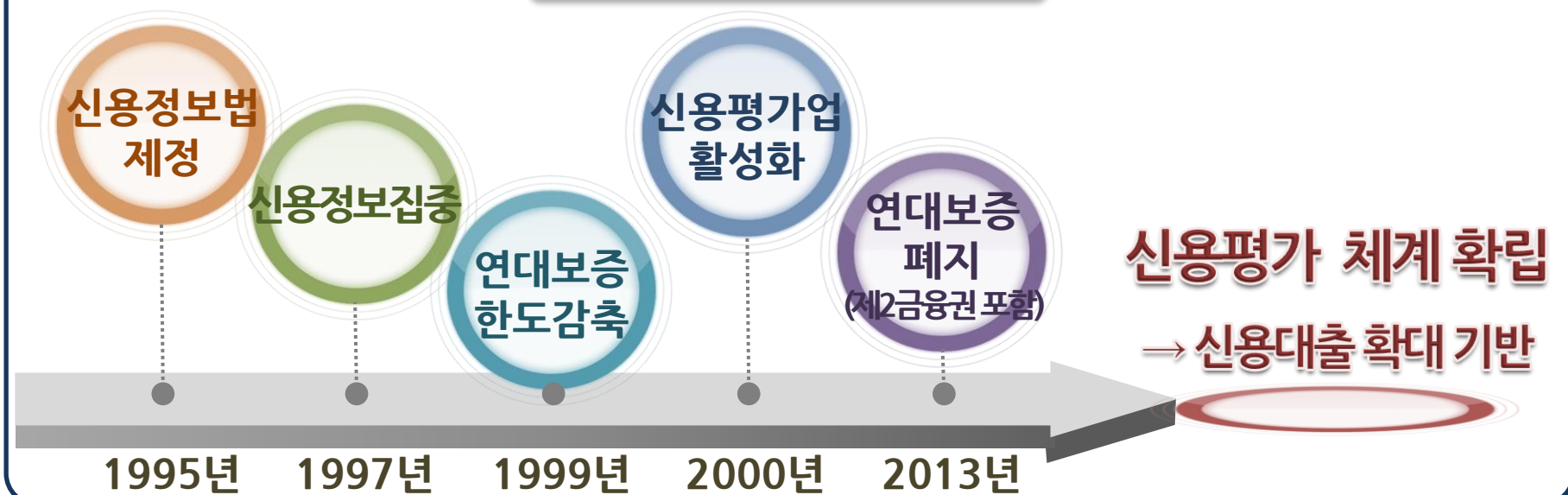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기술·지식의 가치와 사업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활용체계 미흡
→ 담보·보증 중심 금융관행 지속

목표 설정

▶ 기술·지식 기반 금융 체계 단계적 형성
※ 선도인프라구축 → 시장확산 → 자체 활성화

개인신용대출 시장 형성





기술신용 평가기관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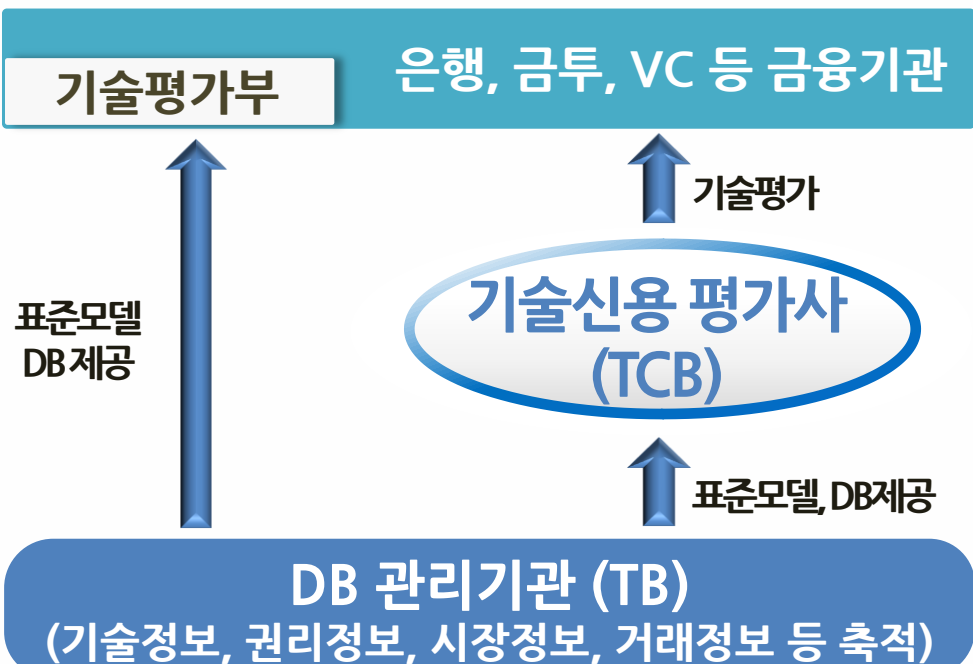
➤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 평가기관 설립 ('15년 출범 목표)

* 요건을 갖춘 기업 CB, 회계법인 등도 부수업무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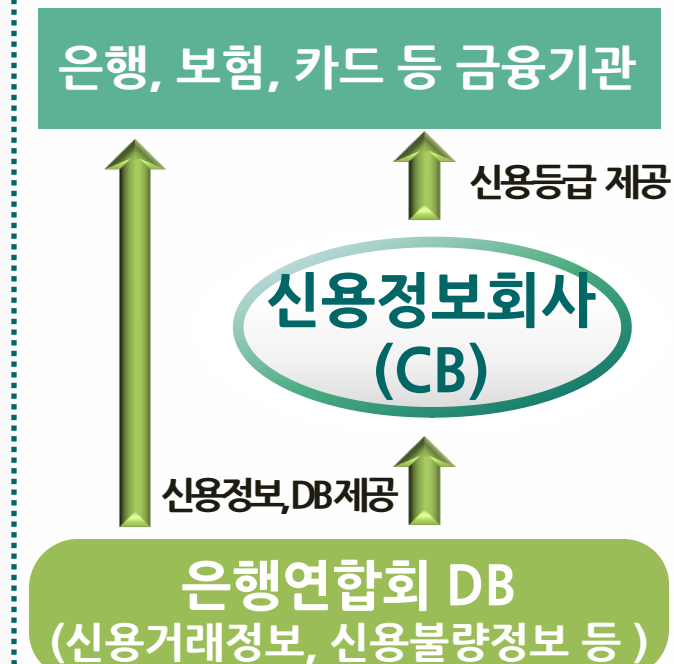


<기술평가체계 신설안과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 비교>

기술평가 체계



개인신용평가 체계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개방형 DB 구축

➤ 개방형 기술평가 DB 구축 (관계기관 합동)

* 기술의 권리성, 사업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공유

➤ DB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조직 설치 검토

* 기술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 정보이용기관 및 평가기관과 분리



금융회사 활용도 제고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투자모형에 평가 정보 반영

➤ 기술기업상장공시시 기술력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정보 공시 유도

금융회사 인프라 구축

➤ 평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이 기술평가 표준모델 공동개발

➤ 기술평가결과에 따른 자금공급시 면책·감경 등 인센티브도 도입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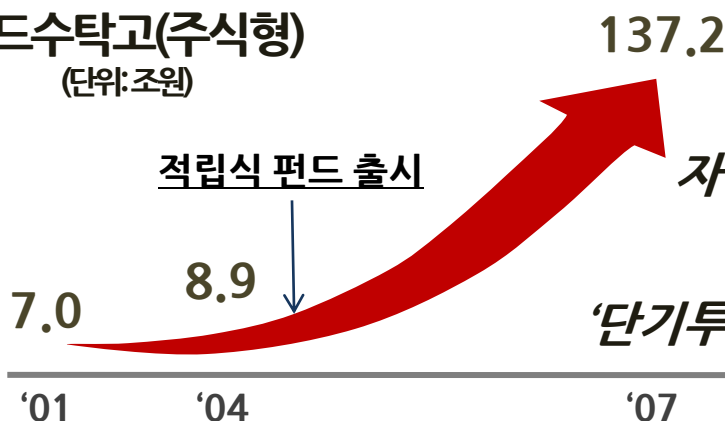
- ▶ 거래소(자본조달) 시장 보수화·획일화
- ▶ 주식·채권 등 전형적인 금투상품, 단순중개·매출 서비스 제공에 편중
→ 시중 자금의 단기화·보수화 심화

목표 설정

- ▶ 사모투자자금 중심으로 적극적인 모험투자자본을 육성
- ▶ 안정지향적인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환류를 위한 신시장·상품·서비스 공급

적립식 펀드를 통한 자본시장 확대

펀드수탁고(주식형)
(단위:조원)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변화



사모펀드 제도 개편

➤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2개로 단순화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PEF 등 복잡·다기화

➤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 대폭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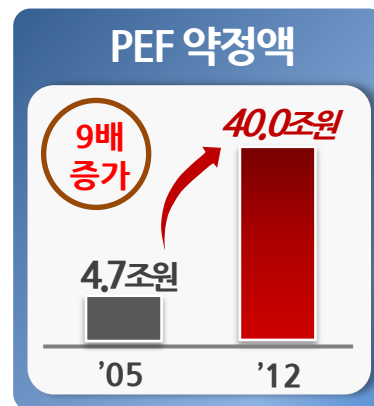
* 증권사,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등도 겸영 허용

➤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등록 → 보고』로 개편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

* 주택 이외의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

*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담보제공 규제 등 완화



➔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자본시장법 개정)**



상장(IPO) 활성화

➤ 상장(IPO) 부담 완화

① 일반 주주수 및 의무공모 요건 등 진입기준 완화(코스피)

*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1,000명 → 700명) 등

② 상장질적심사 항목 간소화 (현행 대비 △50%,코스닥)

③ 대형 우량기업 신속상장제도 도입(코스피)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45 → 20영업일 이내) 등

④ 수시공시제도 및 보호예수제도 개선

* 예) 54개 수시공시 항목 전면 재검토

* 예)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 축소(1년 → 6개월) 등

신규상장기업 수

177개



'05

'12

➤ 대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규율 강화 등 규제차익 해소

➤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 정립



자본시장 투자수요 기반 확대

- 공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 개선
-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펀드 투자 유도
 - *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유도 (관계부처 협업)

파생상품시장 균형 발전 도모

-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 우선 검토
- 현물시장 규모, 헤지수요 등과 연계한 파생상품시장의 적정성장 지원

신상품 출현 유도

-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 도입 (예 : ETN)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합리적 개선 ('14년 1사분기)





현장의 목소리

- ▶ 중소기업·대규모 PF 해외진출 애로
- ▶ 창업과 도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금융
 - 실패한 창업가에 대한 '주홍글씨'
 - 융자 위주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목표 설정

- ▶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실패-재도전」이 원활히 이뤄지는 금융환경 조성

기업-금융 선순환 기반 조성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재도전 기회 부여



정책금융기관과 협업



지원성과 공유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해외네트워크 확대

➤ 금융 미진출 지역으로 기업금융 해외 네트워크 확대

* 예) 해외은행과 국내은행 미진출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휴 등

[예시] 기업은행 「5대양 6대주 글로벌 네트워크」

전세계 주요 은행과
MOU 체결(13개 은행)



제휴은행을 활용한
해외진출기업 대상
우수 금융서비스 제공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 강화

➤ 기업 해외투자, 기술인수, M&A 재원조달 지원

* 예) 글로벌협력펀드(정금공), 해외투자기업 보증(신·기보) 등)

➤ 국내 시중은행의 선박금융시장 참여 확대 지원

[예시]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의 협조 융자 사례

수은,무보 - 외환은행
10억\$ 협조융자('13.11월)

삼성중공업
FPSO 수출지원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개선

➤ 우수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부담 완화('14년 신·기보)

[참고]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

- **대상** 일정수준 사회적 신용도 있는 기술분야 창업기업
- **방식** 연대보증 면제, 가산보증료 수준 다양화 등
- **관리**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후 철저 점검



➡ 운영성과를 감안, 은행권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

'중소기업 금융' 통계 구축

➤ 중소기업 자금수요·여건을 반영한 국가통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정책자금조달 시도 여부 및 결과, 회사채 발행 시도 여부 등



중소기업 지원방식 다양화

➤ 보증기관의 지원방식을 간접(대출보증)에서 직접지원(회사채보증)으로 다양화

[참고] 보증기관의 선도적 투자 활성화 방안

- **대상확대** 신보 보증기업에 대해 보증연계투자 지원('14년)
- **범위확대** 신·기보의 총투자한도 및 동일기업 투자범위 확대
- **방식확대** 보증기업 희망시 기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방식 도입



➡ **융자(debt) 위주 지원을 투·융자(equity) 복합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도**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목표 7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 8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목표 9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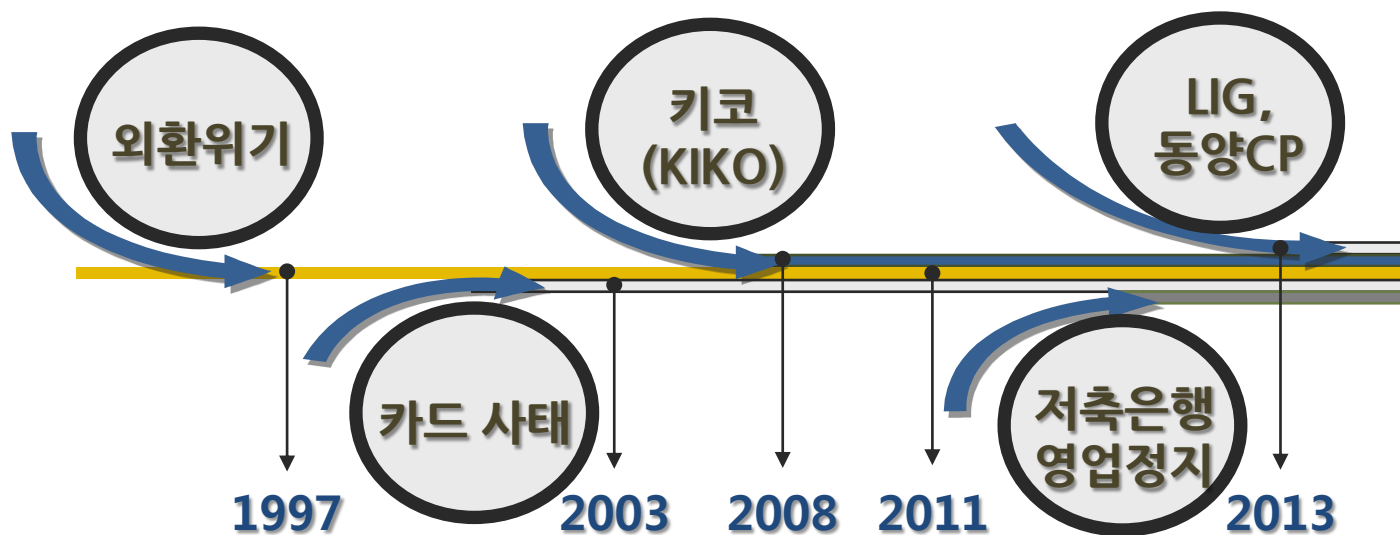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중심의
규제·감독으로 소비자 보호 미흡

목표 설정

- ▶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제재 강화
(소비자 피해시 무관용)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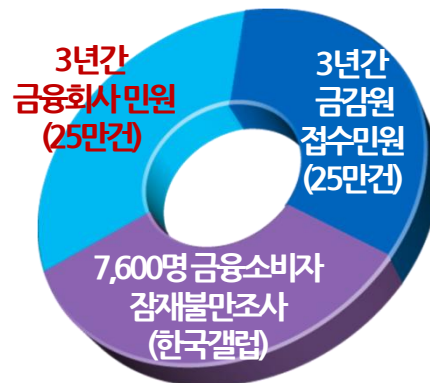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 금융소비의 쉼과정 규율 → 금융회사 과잉대출·불완전판매 근절
-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조기 안착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 개선

- 『10대 위반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꺾기, 보이스피싱, 수수료 부당수취 등
- 소비자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개선
- 자본시장 교란행위 관련 과징금 도입('14년 上)
- 보험사기 예방·조사 인프라 강화('14년)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중]
(소비자보호기획단)







현장의 목소리

- ▶ 금융감독·인프라의 fine-tuning 필요
 - * 통합감독, 규제변경 리스크 축소, 정리체계, 시장규율·평가, 규제차익 제거 등
- ▶ red tape, 혁신저해, 감독관행 여전

목표 설정

- ▶ 금융감독·인프라 분야의 Follower → Frontier로 도약 (“아시아 신흥국의 Rule-setter”)
- ▶ 시장친화적, 신뢰받는 감독행정 구현

변화된 위상

The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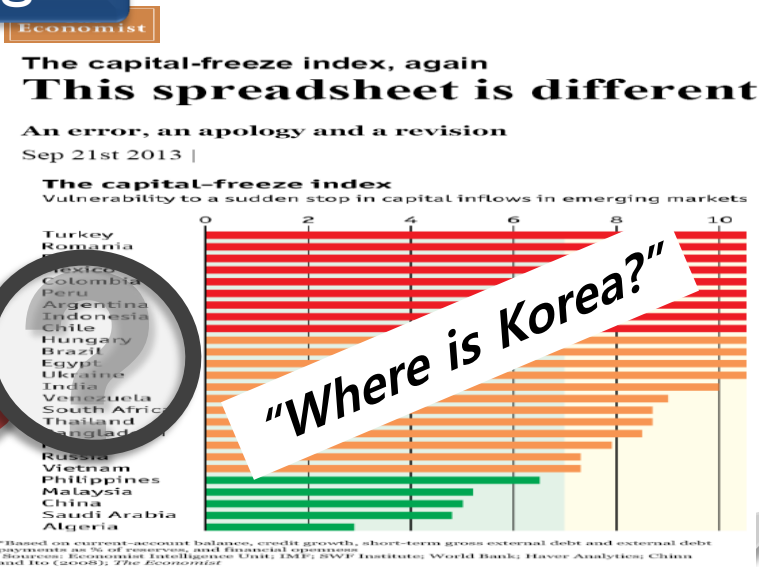
Economics focus

Domino theory

Where could emerging-market contagion spread next?
Feb 26th 2009 |

Country	Current-account as % of GDP	Short-term debt as % of reserves	Banks' loan/Deposit ratio	Overall risk ranking
South Africa	-10.4	81	1.09	17
Hungary	-4.3	79	1.30	16
Poland	-8.0	38	1.03	14
South Korea	1.3	102	1.30	14
Mexico	-2.5	39	0.93	12
Pakistan	-7.8	27	0.99	12
Brazil	-1.5	22	1.36	10
Turkey	-2.3	70	0.83	10
Russia	1.5	28	1.51	9
Argentina	0.2	63	0.74	8
Venezuela	0.8	58	0.75	7
Indonesia	1.2	88	0.62	6
Thailand	0.3	17	0.88	5
India	-2.4	9	0.74	4
Taiwan	7.9	26	0.87	3
Malaysia	11.3	15	0.72	2
China	5.2	7	0.68	1

Sources: HSB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9 forecast + higher score implies higher risk



금융감독 전문성·투명성 강화

- 위기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금융감독 역량 집중
 - * 예) 시스템리스크, 금융그룹 연계리스크, 금융사와 계열사간 거래 등
- 비공식 행정지도·가이드라인 일괄정비(문서주의 원칙)
 - * 다만, 소비자보호·금융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법규에 반영
- 가칭 「금융감독 방향」 정기적 공표(연1회)



“시스템리스크 방지”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 FSB등 국제금융감독 논의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 * 예) 금융회사 정리체계, 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설립,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등
- 신용평가 지도·감독 강화, 외감법 규율대상 확대
- 단기자금시장·단기 지표금리 관련 규율체계 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행의 실질적 개선
 - *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발간, 주기적 점검·평가체계 구축 등



“금융질서 확립”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6개월간 21.4만 명 성공적 채무조정 지원



현장의 목소리

- ▶ 中금리대 서민금융 상품 부족, 민간 서민금융회사 기능 미흡
- ▶ 「신용양극화 → 금융양극화」 심화

목표 설정

- ▶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 등 서민 금융회사 본연의 기능 회복 유도
- ▶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 + 일자리 등 자활기반 지원

금융포용 확대 추진

서민금융 특화
평가·심사 인프라



서민금융회사
기능 회복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근본적인
자활기반 지원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확대

-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서민금융회사로서 역할 강화
 - * 예) 신탁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를 일부 확대 등
-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통합
-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활성화(14년중 17 → 30개 확대)



자활기반 마련

-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신용상담·교육 Hub”로 육성
 - * 일정기준 이상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 강화
 -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희망컨설팅(중기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 서민금융 특성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신용정보 공유 확대
 - ➡ 서민대상 中금리대(10~20%) 신용대출 활성화

인프라 정비 (1단계)

중앙회 중심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서민금융 특성반영 (2단계)

서민 고객의 정성적
정보 적극 활용
("관계형 금융")

정보공유 확대 (3단계)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서민금융기관과 공유
(중장기 과제)

[참고] 서민금융기관의 개인신용대출 현황

- 91개 저축은행 중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24개사에 불과
- 신탁의 신용대출 비중 : ('02말) 44.5% → ('12말) 8.7%

V

향후 추진계획





**10-10
Value-up**

우선추진과제

‘규제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14년
상반기

기반 조성과제

- ▶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 ▶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 금융업 외연 확대(금융한류)
- ▶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4년

민·관 협업

인프라 조성

참고 기대효과 : 미래금융의 모습



부 문	현 재	5년 후	10년 후
핵심산업	수출 주력산업 (반도체 자동차)	현행 주력사업 + 벤처 창업기업, 고부가 서비스업(금융업 등)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7.0%	8.5% 수준	10.0% 수준
新 금융 일자리 창출	생애자산관리, 기술금융평가 등 고부가 금융전문인력 약 5천명 신규창출		
국내은행 해외수익 비중	7.6%	10.0% 수준	12.5% 수준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비중	3.1% (’09~’12년 평균)	7.5% 수준	10.0% 수준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	25~28위	20위권 내 진입	15위권 내 진입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